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발걸음

08

헨켈코리아

- 🔍 **업종** | 글로벌 생활 및 산업 용품
전문 기업
- ★ **설립일** | 1876년(본사 기준)
/ 1989년 한국 진출
- 💰 **매출액** | 201억 1,400만 유로
(2019년 기준 글로벌 매출)
한화약 27조 6,191억 원
- 👤 **직원 수** | 700명
- 🌐 **홈페이지 주소** | www.henkel.co.kr



헨켈코리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이야기



🗨️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후원

글로벌 소비재 및 산업용품 기업인 헨켈은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성장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40년까지 '기후 긍정'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보다 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헨켈은 지역사회적 니즈를 비롯한 교육, 과학, 건강과 보건, 예술과 문화, 환경 분야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체 및 기관을 후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은 헨켈 경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이는 프리츠 헨켈(Fritz Henkel)이 헨켈을 창립했을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자 헨켈의 기업 가치에 굳건히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헨켈은 임직원, 고객, 소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실천 사례



💬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

헨켈코리아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당면한 감염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5만 유로(한화 약 6,600만 원)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헨켈 재단(Fritz Henkel Foundation)은 대한적십자사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2만5,000유로의 현금을 직접 기부하였다.

동시에 헨켈코리아는 희망브리지를 통해 감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개인위생에 꼭 필요한 헨켈의 세탁세제 퍼실(Persil), 사이오스(Syoss) 샴푸와 컨디셔너, 다이알 향균 비누 등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감염취약계층 가정에는 아동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등교 개학을 앞두고 꼭 필요한 개인방역키트를 제작해 함께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희망브리지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구호 물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과 단체, 재난취약계층 등에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헨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글로벌 국제기구, 지역사회 및 협력사 대상의 포괄적 글로벌 연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헨켈은 UN재단이 추진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 및 전 세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총 2백만 유로를 기부했다. 그 가운데 헨켈이 1백만 유로를 직접 기부한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환자와 일선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백

신·시약·치료약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활동 중인 전 세계 유관 단체 및 기관들 대상으로 1백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 헨켈의 세제, 손 세정제 및 다양한 가정용 위생용품 5백만 개를 각 국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 등에 전달하였다.



코로나19 구호물품 지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 대상 기부

🗨️ 어린이를 위한 과학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작

헨켈코리아는 2020년 6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방구석 과학실험’ 온라인 교육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은 ‘음식으로 접착제 만들기’를 주제로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밥, 밀가루, 곰 젤리, 풍선껌을 이용해 접착제를 만든 뒤 각 음식물의 접착력 겨루기와 과자 집짓기 등 실험과 놀이방법을 소개했다.

이번 영상은 독일 헨켈(Henkel) 본사가 진행 중인 과학문화 사회공헌 프로그램 포셔벨트 (Forscherwelt)의 일환으로, 헨켈코리아가 국내 실정에 맞춰 현지화해 디지털 콘텐츠로 선보인 것이다. ‘과학자들의 동산’이라는 뜻의 독일어인 포셔벨트는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기본 원리를 재미있게 배우며 자연스럽게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헨켈코리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 실험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더불어 지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방구석 과학실험'

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포셔벨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오프라인 사회공헌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하며 재미있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헨켈코리아의 유튜브 영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학습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흥미를 붙여넣어 주었다.

헨켈의 글로벌 포셔벨트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독일과 러시아, UAE,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브라질, 폴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34,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 직원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 동참

헨켈코리아의 김영미 대표이사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영미 대표이사는 한국바스프 김영률 대표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

으며,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도이치은행 박현남 서울지점 대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을 지명했다.

이에 앞서 헨켈코리아는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도 동참한 바 있다. 또한 헨켈코리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 직원 대상 개인방역의 중요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권장하며 코로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전 사업장에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세일즈 등 대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방역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헨켈코리아 김영미 대표이사는 "헨켈코리아의 임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 모두의 응원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덕분에 챌린지'도 끝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진에게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 지속가능성장과 기후변화 극복에 앞장 서

헨켈은 지속가능성장을 실천하며 기후변화 극복에 앞장서고자 자사의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환경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계속 노력하고 있다. 헨켈의 모든 패키지를 2025년까지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바꿀 계획이며 소비재 제품 중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의 양을 5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플라스틱 양을 줄이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사용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또 폐기물이 자연에 배출되는 것을 막고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이나 보건 등 여러 분야를 아울러 현지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헨켈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되고자 현재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 헨켈코리아, 플라스틱 공병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

헨켈코리아는 업사이클링 작가 박상빈과 함께 폐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폐자원이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에 대한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헨켈코리아가 자사 공병을 지원한 박상빈 작가의 작품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헨켈코리아는 박 작가에게 헨켈 제품 록타이트와 퍼실 세제 등의 플라스틱 공병을 제공하였다. 박작가는 주로 폐플라스틱과 비닐수지로 작업을 해온 신진작가로 헨켈코리아에서 지원받은 플라스틱 공병을 이용해 한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영원히 쓰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작 'Hound'는 푸른색 퍼실 공병으로 만든 실물 크기의 조형물로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려는 하운드 개의 모습을 담아냈다. 다른 작품인 'Korean Jindo Dog'

에서 검은색 록타이트 페 오일통은 한국의 용맹스러운 진돗개의 모습을 한 조형물로 재탄생했다.



●향후 계획 등

헨켈은 지속가능성장을 실천하며 기후변화 극복에 앞장서고자 자사의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환경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계속 노력 중에 있다. 헨켈의 모든 패키징을 2025년까지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바꾸고 실천할 계획이며 소비재 제품 중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의 양을 5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 플라스틱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플라스틱 양을 줄이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사용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또, 폐기물이 자연에 배출되는 것을 막고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이나 보건 등 여러 분야를 아울러 현지 지역 사회 내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헨켈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되고자 현재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집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1월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6490-591-1 (93320)

979-11-6490-592-8 (95320)(PDF)

| Copyright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